



* 등급정보 (닭고기) *

▷ 20개 업체에서 생산한 3백59만4천수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1백24만9천수(34.8%), 1등급은 2백16만4천수(60.2%)를 차지, 전월(20개 업체, 3백40만수)대비 19만4천수(5.7%) 감소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09년 1~6 월	16,869,529	5,843,587	9,798,470	1,227,472
	(100.0)	(34.6)	(58.1)	(7.3)
'09년 5월	3,400,029	1,178,948	2,051,515	169,566
	(100.0)	(34.7)	(60.3)	(5.0)
'09년 6월	3,594,044	1,249,177	2,163,791	181,076
	(100.0)	(34.8)	(60.2)	(5.0)

* 축산뉴스 (닭고기) *

양계협, '산란중계로 삼계생산 안돼'

(주)하림이 산란중계를 도입해 삼계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가 그러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6월 30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하림이 산란중계로 삼계탕용 병아리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산란계 산업에도 진출해 양계산업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아욕이 숨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삼계의 소비가 여름철 복 경기 시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하림이 산란중계로 삼계탕용 병아리를 생산할 경우 비수기에는 과잉 생산이 발생, 이를 시중에 판매할 경우 산란계산업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하림이 산란중계 도입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림측 관계자는 "삼계탕용으로 공급되는 삼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질병의 온상 등으로 지목되는 현실을 감안, 산란중계를 직접 들여와 삼계탕용 병아리를 생산하려는 것"이라며 "양계협회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GS마트, '여름철 닭가슴살 판매 증가'

여름이 다가오면서 고단백·저지방 식품인 닭가슴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마트는 지난 6월 24일 "지난 6월 1일부터 23일까지 닭가슴살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9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닭고기 전체 매출도 81.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GS수퍼마켓에서도 닭가슴살 매출은 지난해보다 76.6% 늘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을 만드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힘입어 먹기 간편한 닭가슴살 통조림도 인기다. GS마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하림닭가슴살 통조림(150g)은 축산통조림 내 매출수량 상위 3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닭가슴살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닭안심과 닭다리도 전년동기대비 87.4%, 90.1%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